

구례군, 지리산 케이블카 9년 만에 단독 재추진

군 “노선 줄여 발달곰·생태 보호구역 침범 않고 환경훼손 최소화” 환경부 “4개 지자체 단일화 조건 해결 안돼 승인 여부 답변 못해”

지리산권 영호남 4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구례군이 9년 만에 단독으로 사업을 재추진키로 해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례군은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신설 등 내용을 담은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2012년 경남 산청·함양군, 전북 남원시, 구례군 등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제출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모두 부결하면서 '지역을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4개 시·군의 시장과 군수, 실무자들이 직간

접으로 만나 단일화 가능성을 협의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리산 주변 4개 시·군 중 일부는 2012년 부결 후 9년여 동안 단독 신청을 하는 등 독자 추진을 시도했지만, 신청서가 번번이 반려됐다.

구례군은 2017년부터 각종 용역을 진행하며 지리산 케이블카 재추진을 준비했다.

기존 케이블카 노선을 기존 4.3km에서 1.2km가량 줄여, 노고단이 아닌 주변 종석대에 도착지를 설치하는 신규 설치안을 대안으로 마련했다.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소요 예산은 453억원으로 추산했다.

신규안대로라면 발달기곰 보호구역을 침범하지 않고, 생태경관 보전 지역도 침범하지도 않아 환

경훼손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구례군의 판단이다.

구례군은 케이블카를 신설하면 군도 12호선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지리산국립공원 내 생태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구례군 삭도추진단 관계자는 “환경부의 단일화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 지리산 주변 시·군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협의했지만,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다”며 “각자 지자체가 별도의 재추진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우리 군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구례군으로부터 구두로 연락을 받긴 했으나,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제출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신청서가 제출되면 검토하겠지만, 2012년 공원의 4개 지자체 단일화 조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불친절 민원 제기에 공무원들 대응은

구례군 수영장 직원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민원인 “과격했지만 고소까지...” 국민청원

구례군 주민 A씨는 지난 8월, 구례군 직영 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불친절한데다 근무태만을 일삼고 있다'며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합하지 않아보이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A씨에게 돌아온 건 민원 처리 내용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다는 경찰서의 통보 전화였다.

고소인은 다른인 A씨가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넣은 수영장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B·C씨였다.

A씨는 당황스러웠다. 비록 A씨의 민원 내용이 당사자들에게 불쾌할 수 있었겠지만 비공개인 인터넷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이 민원인을 고소한다는 일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다.

A씨는 공무원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비록 민원 내용이 당사자에게 과격할 수 있지만 고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썼다. 이어 “구례군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을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열람시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마찰을 일으키는 발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민원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례군 감사팀 관계자는 “A씨의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후, 해당 부서에 전달된 것으로 안다. 그러나 A씨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건을 담당중인 구례경찰은 “공무원 2명이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사실이면서 현재 수사중이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가능하지 여부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건강하게 삽시다 3일 광주시 동구 푸른길 원형광장에서 열린 '건강체조 교실'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강사의 울동을 따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동강대, 육군 부사관 학군단 유치

광역시권 전문대 최초

동강대학교가 광역시권 전문대 최초로 육군 RNTC(부사관 학군단)를 유치했다.

동강대 군사학과는 최근 육군본부로부터 RNTC 운영대학 최종 승인을 받았다.

RNTC는 설치대학의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부사관 학군단 후보생을 1학년 1학기 때 선발, 3학기 동안 군사교육 후 임관시킨다. 임관 후에는 전월장기복무 간부로 장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동강대는 지난 7월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RNTC 유치를 신청, 서류심사를 통과해 9월 실시를 진행했다.

광역시권 전문대학 최초로 RNTC를 유치한 동강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중 여학생 5명을 포함한 25명을 선발하고 1학기 이후 정식 하게군 사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동권 군사학과장은 “동강대 군사학과는 이번 RNTC 유치로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직업군인 요람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강대 군사학과는 지난 2011년 개설 후 2014년과 2016년·2018년·2020년 육군본부 전국 최우수 군사학과로 평가받았다. 또 2019·2020년 2년 연속 육군본부 인재 선발 최우수 군사학과로 선정됐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서구,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6년 연속 최다 수상

학습공동체분야 상무1등 등 7건

광주 서구가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사례 6년 연속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구는 제20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최우수상 4건을 비롯해 총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6년 연속 우수사례 전국 최다 수상 지자체라는 역대

최고의 성적을 이어가게 됐다.

주민자치분야의 풍암동, 학습공동체분야의 상무1동, 특별공모분야의 화정4동, 풍두레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어 학습공동체 분야의 농성1동, 주민조직네트워크공모분야의 양3동이 우수상을,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양동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서구의 적극적인 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지역 주민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참여가 마을의 변화로 이어지는 서구만의 완전한 자치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 남구청서 가족 사진전

광주 남구종합청사 1층 로비 공간이 오는 16일까지 2주간 가족 사진관으로 변신한다.

지난 9월에 출산 장려 및 공동육아 등 가족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 '출산장려 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남구청사 1층 로비에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과

우수상 작품 2점, 장려상 작품 4점을 비롯해 일상 자 명단에 들지 못했지만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앵글에 담은 우수 작품 등 총 20점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몇몇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윤인옥 씨 가족은 무더위가 극성을 부린 올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까운 공원을 방문, 아빠의 구령에 맞춰 물놀이를 하는 자녀 사진을 출품해 다자녀 가정의 행복한 일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향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